

회색문헌 정보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피사 선언문



2014년 5월
16일

머리말

기관들과 정부들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상업적 출판업계의 통제 없이 광범위한 주제 영역과 전문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있다. 회색문헌(Grey Literature)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러한 출판물과 데이터 그리고 여타 자료들은 기업, 산업 분야, 전문 분과 그리고 시민사회 내에서 학문적 소통과 연구 그리고 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정보원이다. 회색문헌은 과학, 공학, 보건, 사회과학, 교육학, 예술 및 인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입증, 논증, 혁신 그리고 이해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인쇄물 혹은 전자문서 형태의 회색문헌 문서 종류는 연구 및 기술 보고서, 브리핑 및 리뷰, 평가보고서, 조사보고서, 학술회의자료, 논문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있으며, 이것들은 연구와 정보에 있어 중요하고 가치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학문, 정부, 시민사회, 교육 그리고 경제를 위한 연구와 정보 증진의 편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본 선언문의 서명인인 우리들은 정부, 학계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회색문헌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증진할 것을 요청한다. 특히 연구와 열린 과학, 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책입안 그리고 지식이전에 있어서 오픈 액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회색문헌이 지역 사회, 개별 국가 그리고 전 세계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청하고 또 장려한다:

기관 차원

1. 정부와 기관들은 오픈 액세스에 대해 더욱 전념할 것.
2. 회색문헌의 생산, 사용, 수집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 기관 간에 더욱 협력하고 조율할 것.
3. 회색문헌에 대해 영구적 식별자와 오픈 메타데이터 표준을 사용할 것.

연구/교육 차원

4. 정부, 대학 그리고 기타 기관들이 생산한 고품질 회색문헌 자료를 새로운 형태로 인식하고 보상할 것.
5. 회색문헌의 생산과 회색문헌의 서지통정에 대한 표준을 개선할 것.
6. 회색문헌의 관리와 관련하여 상호호환이 가능한 표준을 개발하고 시행할 것.
7. 회색문헌의 생산, 보급 그리고 평가를 위한 좋은 관행을 만들 것.

법적 차원

GreyNet

Grey Literature Network Service

회색문헌 정보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피사 선언문



2014년 5월
16일

8. 납본 및 저작권법을 변경하여 도서관, 수집 서비스, 그리고 교육 기관이나 프로그램들이 회색문헌 중에서 특히 비영리 공익 목적 자료를 수집하고 회색문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한 능력을 강화할 것.
9. 회색문헌의 보급에 방해가 되는 법적인 제한사항들을 처리할 것.
10. 영리적 및 비영리적 목적 모두를 위한 회색문헌 콘텐츠를 허용하는 노력을 증진할 것.

재정적/지속 가능한 차원

11. 회색문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것.
12. 회색문헌의 수집 개발 및 장기 보존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
13. 인쇄물 및 디지털 형식으로 된 회색문헌에 대한 접근과 사용을 증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및 신기술에 더 많이 투자할 것.

기술적 차원

14. 이용 불가능한 링크를 처리하고 온라인 콘텐츠의 안정성과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15. 회색문헌의 공유를 위한 상호호환 표준을 갖추고, 데이터 및 기타 비 텍스트 콘텐츠를 그것들의 회색문헌 출판물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

GreyNet

Grey Literature Network Service